

21세기 바람직한 韓日間의 관계 정립

이종윤 /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국제경제학

韓日 관계의 전개 과정

일본 경제의 일부로 편입되어 일본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한국이 1945년의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독자적인 선택에 의하여 경제 발전을 추구해 오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및 과거 식민 통치국으로서 영향력의 잔존 등으로 인해 한국에 있어서 일본은 특수한 긴밀성을 갖는 관계로 발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개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는 이승만 정권의 인위적인 反日 정책으로 韓日 관계는 극히 소원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나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양국 관계는 특히,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긴밀성을 심화시켜 간 것이다. 곧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외 지향적 가공 무역 입국과 이미 추진되어 오던 일본의 중화학 공업 부문의 집중 육성을 겨냥한 동태적 국제 분업주의 정책이 맞아 떨어져 한국의 경제 발전 구조 속에 일본 경제가 빠른 속도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기에 걸쳐서는 한

국이 공업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축적 및 경공업 제품의 수출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이 대대적으로 투입됨으로써 한국 경제는 일본의 자본재와 기술에 의해, 한국 노동력으로 가공하여, 미국 등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식의 발전 구조를 정착시키게 된 것이다.

이때 일본은 한국 경제의 이러한 발전 방식을 활용하여 자본재 및 원자재, 부품류의 안정된 시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광산물, 수산물 등 1차 산품 및 저임금을 활용하는 저가공 부품류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간 것이다.

1970년대 중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한국의 중화학 공업의 국내 대체화에 있어서도 일본의 자본 및 기술에 크게 의존했을 뿐 아니라, 일본의 관련 산업을 외부 경제로 활용하여 특정 산업의 국내 대체화를 추진해간 것이다. 가령, 자동차, 전자 및 조선 공업의 국내 대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 기술 부품류의 국내 대체화는 뒤로 미루고 기술적으로 흡수가 용이한 조립 부품의 국내 대체화부터 착수하여 점차 국산화율을 높여 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1980년대 다양한 중화학 공업 부문에 걸쳐 동시적인 국내 대체화의 추진이 가능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조선, 전자, 철강 및 기계 공업 등 중요한 중화학 공업이 1970년대에 건설되어 생산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산업 활동은 불가피하게 기술, 자본재의 도입국으로부터의 의존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로 인해 한국 경제는 기술, 자본재의 도입선인 일본과의 관계를 심화시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특정 중화학 공업의 완전 대체화가 아닌, 노동 집약적 부문을 중심으로 한 부분 대체화의 단계에서 수출화가 추진되었으며, 따라서 최종 제품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 부품류의 수입 비율을 쉽게 낮출 수 없어 對日 수입 의존은 더욱 심화되어 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對日 수입은 한국의 경제 발전 방식과 연동됨으로써 고도의 경직성을 띠게 되었는데 비해, 對日 수출은 수출품이 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노동 집약적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복잡한 유통 구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그렇게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 왔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가 계속되다가 1985년 9월의 플라자합의는 한국의 對日 수출에 하나의 전기를 갖게 했다. 곧 일본의 거대한 흑자와 미국의 방대한 적자 등 국제적 불균형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그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주요 선진국간 큰 폭의 환율 재조정 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어 합의된 것이 다름 아닌 플라자합의이다. 이 합의에 따라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일거에 40% 절상되었는데, 이

것은 달러에 연동되는 원화에 대비해서도 동일한 평가 절상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인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통상 환경의 변화는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엔고 극복적 차원에서 일본 기업의 對韓 직접 투자 내지는 직접 구매의 방식으로 부품류의 對韓 수입을 크게 확대시키게 함으로써 부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韓日 무역이 종래까지의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수평적 분업으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클린턴 정부의 출현과 더불어 다시 엔고 행진이 시작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이 수출을 증가시킬수록 그리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을 확대시켜 갈수록 對日 수입도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韓日 관계의 평가

기술한 바와 같이 韓日 경제 관계는 1965년의 국교 정상화 이후 양적으로 급팽창해 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자본 및 기술 이전 그리고 직접 투자 등의 형태로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해 오며 따라 한국의 입장에서 韓日 경제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 되어 간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韓日 관계의 긴밀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두드러진 현상은 엔고만 진행되면 한국의 수출이 급신장한다는 점과 그것과 연동하여 한국의 對日 수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韓日 관계는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韓日 관계의 긴밀성은 한국의

일방적인 면이 강하며,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되므로 양국 관계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韓日 쌍방이 서로를 긴밀하게 느끼도록 하는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韓日 관계의 긍정적 측면

韓日 관계가 양적 팽창 내지는 긴밀성을 심화시키게 된 데는 한국과 일본 다같이 서로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측면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기여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

일본 식민 통치의 산물로서 한국에 일본어 내지는 일본 문화의 이해자가 적지 않게 존재했는데, 이들의 존재가 다른 선진국이 아닌 일본이 축적한 기술 및 경영 기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일본적 기술의 특징은 歐美로부터 도입한 원천 기술을 생산 활동에 용이하도록 개량한 것이며, 또한 그 개량 방식이 歐美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임금, 비싼 이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본의 요소 가격 비율에 적합시킨 것이었다. 일본 기술의 이러한 특징은 일본보다는 훨씬 뒤늦게 공업화를 시작하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흡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조건에도 보다 적합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신 고용, 연공 서열 및 기업내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일본적 경영』도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 가는 선진국의 조건에 적합시킨

것이 아닌 캐칭-업(catching-up)해 가는 후발국의 조건에 적합시킨 것이었으며, 이러한 측면도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의 다른 선진국이 아닌 일본에의 접근을 확대시키게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일본형 기술 및 경영 기술의 도입은 한국적 조건에 적합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韓日 관계의 확대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측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입장에서 관련 산업이 정비되어 있으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고 하는 측면은,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일본 경제를 외부 경제로 인식하고 조립 부문 등 한국 기업이 흡수 가능한 부문부터 새로운 산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말하자면, 관련 산업이 정비되어 있어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서 당해 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핵심 부품 등을 일본에서 용이하고 신속하게 구입이 가능하며, 또한 국내 대체화시킨 생산 부문조차 고장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은 한국 경제로 하여금 차례 차례로 새로운 산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외부 경제의 존재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높은 성장률을 달성시키는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국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일본과의 경제적 접촉을 통해서 기술한 바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일본은 한국 경제를 그들의 안정된 자본재 시장으로 활용·확대시켜 갔으며, 비교 열위화되고 있는 노동 집약적

산업의 생존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를 자연스럽게 고부가가치화시켜 갈 수 있었다. 나아가서 한국 등을 간접 수출 기지로 활용함으로써 歐美와의 무역 마찰을 그만큼 완화시킬 수 있었고, 공해 산업의 이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對韓 경제 관계를 확대·강화시켜 간 것이다.

韓日 관계의 부정적 측면

이상과 같은 관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韓日 양국은 서로간에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활용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양적 팽창 및 긴밀도를 높여간 것은 사실이나, 적어도 한국의 입장에서 對日 관계의 심화는 개선시켜야 할 중요한 문제점을 구조화시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對日 역조의 확대

한국의 산업 정책이 對日 기술 및 자본 의존 그리고 일본의 관련 산업을 전제로 한 특정 산업의 국내 대체화 촉진 등으로 인해, 한국의 對日 수입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증대되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직적인 구조로 되었다.

반면에 對日 수출은 한국의 수출품이 인접 발전 도상국들과 경쟁하는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은 노동 집약적 상품일 뿐 아니라, 일본 시장은 높은 내외 가격차를 허용할 정도로 많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며 원-세트(one-set)주의 및 중층적 하청제도와 같은 일본의 폐쇄적 산

업 조직의 존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 시장에서의 침투가 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諸관계로 인해 그간 韓日 무역은 경상 수지의 역조를 확대시켜 왔으며, 이미 그 적정 수준을 극히 초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수직적 분업 구조

韓日간에 경제 발전 단계가 확실히 차이가 나며 그간 한국의 일본 경제 의존적 경제 발전의 추진으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나, 한국의 歐美 등 여타 선진국과의 분업 구조에 비해서 韓日 분업 구조는 低부가가치재 내지는 低기술 집약재를 일본에 수출하고 高부가가치재 내지는 高기술 집약재를 일본에서 수입한다고 하는 이른바, 수직적 분업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韓日간에 수직적 분업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한국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업 및 무역 구조의 고도화를 억제시키는 것이 되며, 일본의 경제 성장에 따라 파생되는 對韓 수입이 극히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韓日간에 수평적 분업을 확대시키지 못하는 한, 한국의 일본 경제에의 일방적 의존 관계는 쉽게 극복되지 못할 것이다.

○ 핵심 기술의 對日 의존 체제

한국은 그간 기술 개발 노력을 등한히 해 온 것은 아니지만 일본으로부터 신속하고 쉽게 핵심 기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의 존재는 그만큼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 개발 의지를 약

화시키게 한 것은 사실이다. 기술 보유 일본 기업의 적절한 견제, 관련 한국 기업간의 비합리적 과당 경쟁 및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적절한 정책적 장치의 결여 등으로 인해, 그간 한국이 보다 합리적 대응책을 강구했다라면 가능했을 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극히 저조한 상태이다. 핵심 기술의 개발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한, 핵심 기술의 對日 의존 체제를 쉽게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서 對日 역조의 축소 내지는 韓日 분업 구조의 수직적 구조로부터 수평적 구조로의 전환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 교역 조건의 악화

한국의 對日 수입품이 가격 비탄력적이며 한국의 對日 수출품이 가격 탄력적이기 때문에 韓日간의 교역 조건은 기본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개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 점에 더하여 일본의 對韓 수출 내지 수입의 경우 일본 종합 상사들이 창구적 역할을 함으로써 상대적인 의미에서 공급 독과점 내지는 수요 독과점 상태를 조성시키는 데 反하여, 한국의 對日 수출 및 수입은 완전 경쟁에 가까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한국 상품의 對日 교역 조건을 악화시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 厭韓, 反日の 팽배

韓日 경제 관계가 그간 양적 팽창 및 긴밀성이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는

反日 감정이, 그리고 일본 내에는 厭韓 감정이 팽배해 있어 韓日 경제 관계조차도 합리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가령 일본 기업들 중에서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이 한국 내의 반일적 분위기를 강하게 의식하여 對韓 진출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한국 기업의 일본 내에서의 기업 활동이 여러 가지 형태의 厭韓의 분위기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저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韓日の 경제 관계가 이 정도의 크기로 존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의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왜곡시키는 類의 厭韓 내지는 反日 분위기를 서로간의 노력에 의해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韓日 관계의 재정립

韓日 경제 관계는 상호의 필요로부터 양적 팽창 및 다양한 형태의 긴밀성을 심화시켜 온 것은 사실이나, 반드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핵심은 한국의 일방적 對日 의존성의 문제인데, 그렇게 된 데에는 한국의 보다 신중하지 못한 對日 접근 및 그 상태를 극복하려는 自求 노력의 결여와 일본측의 폐쇄성 내지는 자기 중심적 경제 조직의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최근의 초엔고는 일본 경제로 하여금 더 이상 폐쇄성 내지는 자기 완결형 산업 조직의 존재를 크게 수정하여 대외 협력형으로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는 韓日 경제 관계를 일방적 의존 관계로부터 상호 의존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21세기의 공통 목표를 향해 한국과 일본이 자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韓日 관계를 지금까지의 수직적 분업 관계로부터 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수평적 분업 구조로 전파시키도록 하는 일이다.

韓日간에 이러한 토대가 구축되면 이 토대 위에서 한국과 일본은 힘을 합쳐서 WTO 체제의 발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팽배해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자유 무역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前단계로서 그것이 동아시아 경제 협력체가 됐건 아니면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가 됐건, 열려진 형태의 역내 경제 협력체를 형성하고 활성화시켜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韓日 관계를 종래까지의 수직적 관계로부터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본 기업이 축적해 온 생산 활동 과정에서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고 비능률을 능률화시키는 생산 기술을 한국 기업 속에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한국 기업의 생산 활동을 보다 합리화시키면, 지금보다 월등히 韓日간 수평 분업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장기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핵심 기술에 대한 한국의 기술 개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통산부에 의해 제시된 자본재 산업의 육성 정책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것이다. 이 경우 그 육성 방법이 전 품목에 걸쳐 망라되어서는 안되고, 반도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다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육성 방법은 개발 성과를 빨리 가시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합리적 보완 관계를 형성시키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본형 생산 기술의 한국 기업으로의 대대적인 도입과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개발력의 강화가 성공적으로 진척된다고 한다면, 韓日간에 확고한 수평적 분업 구조가 구축될 것이며, 나아가서 한국의 對日 역조도 축소 내지는 균형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韓日간에 이런 식의 수평 분업 구조가 구축되면 양국간은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로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양국의 경제 성장 활동은 서로간에 파생적 수입 수요를 불러 일으키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수평적 분업 구조에 입각한 튼튼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면, 이 기반 위에서 韓日 양국은 전술한 바와 같은 열려진 형태의 역내 경제 협력체의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존 자원의 부족으로 해외 시장 지향적 성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韓日 양국으로서는 열려진 형태의 역내 경제 협력체의 구축이 야말로 여전히 팽배해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자유 무역을 통한 안정된 경제 성장을 추구해 갈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조건적 존재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발전적 관계의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